AUTISM EXPO

오티즘 엑스포 교육자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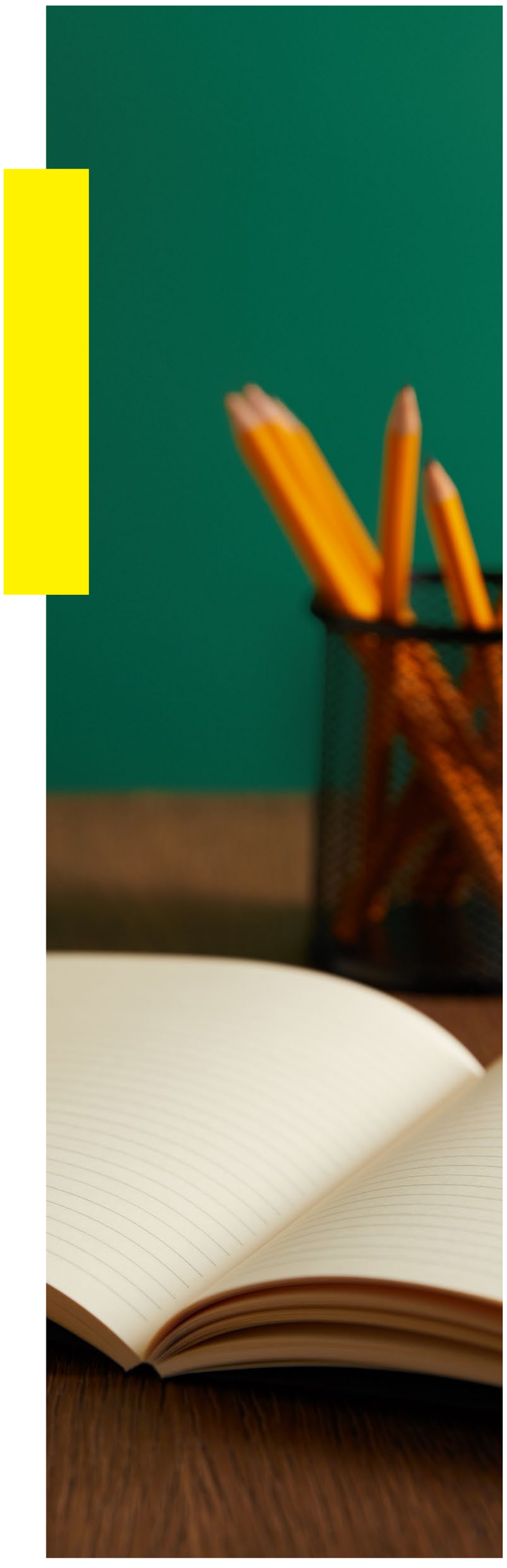


2022 오티즘 엑스포 교육자료

2022

AUTISM EXPO

Table of content



1. 도움이 될 서적 안내

부모 및 일반 교사

그림책, 만화, 동화, 소설

자서전, 평전

장애 인식 교육

교과서, 교재

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실천적인 책 이용

3. ASD 관련 영상/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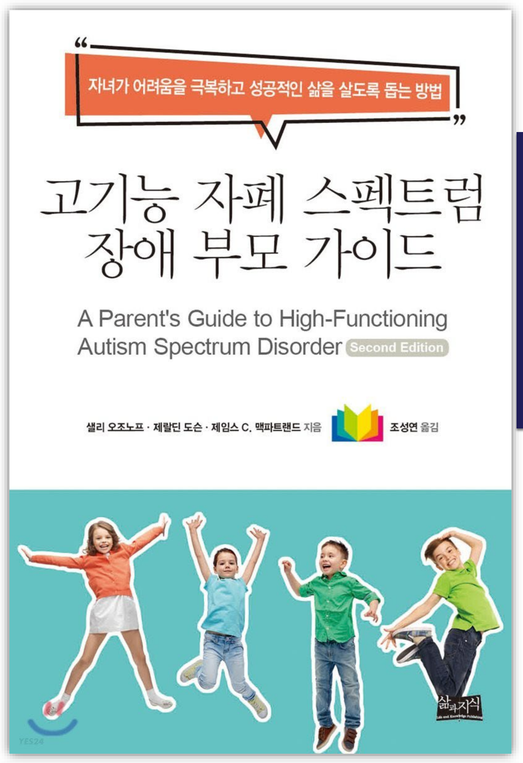
4. 미디어 속의 Autism

5. 도움이 될 웹사이트 안내

6. 자폐스펙트럼장애 QnA

도움이 될 서적 안내
(가나다순)

부모 및 일반 교사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부모 가이드

샐리 오조노프 외 공저, 조성연(옮김), 삶과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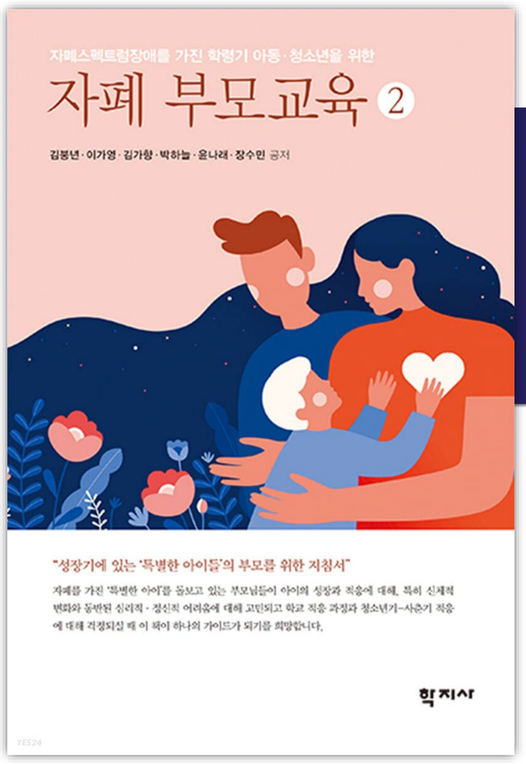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성인 누구나



발달 단계별, 특성 별로 접근한 자폐부모 교육

김붕년,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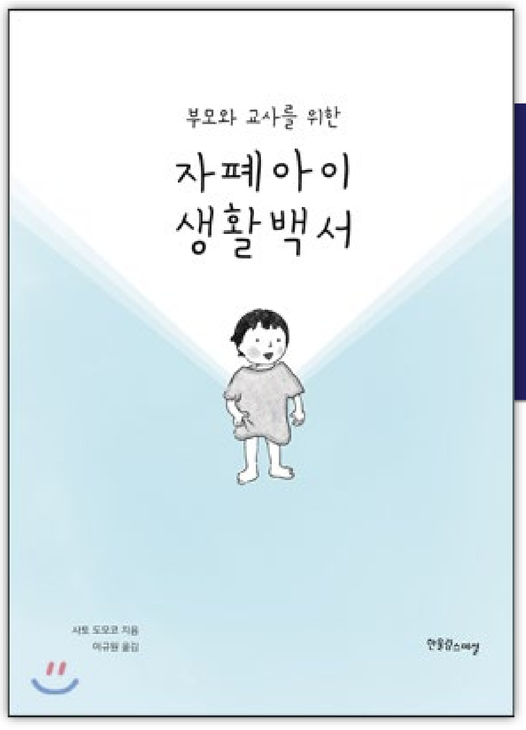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성인 누구나



자폐부모교육2

김붕년 외 공저,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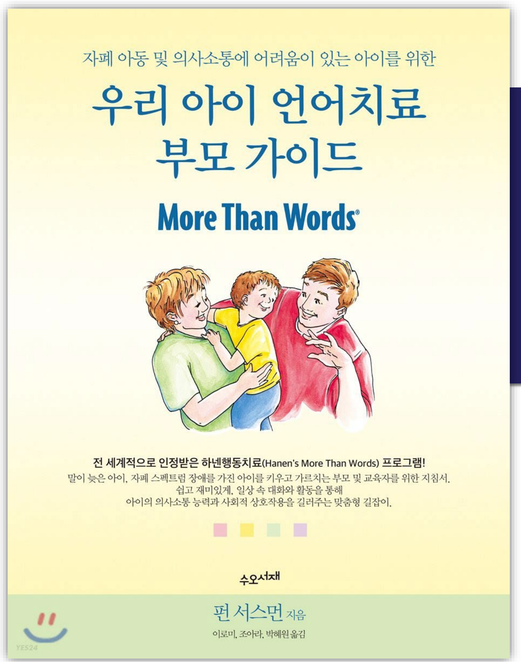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치료사



부모와 교사를 위한 자폐아이 생활백서

사토 도모코, 이유원(옮김), 한울림스페셜

- 유아,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용



우리 아이 언어치료 부모 가이드

펀 서스먼, 이로미(옮김), 수오서재

- 유아,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용



자폐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열 가지

엘런 노트봄, 신홍림(옮김), 한울림스페셜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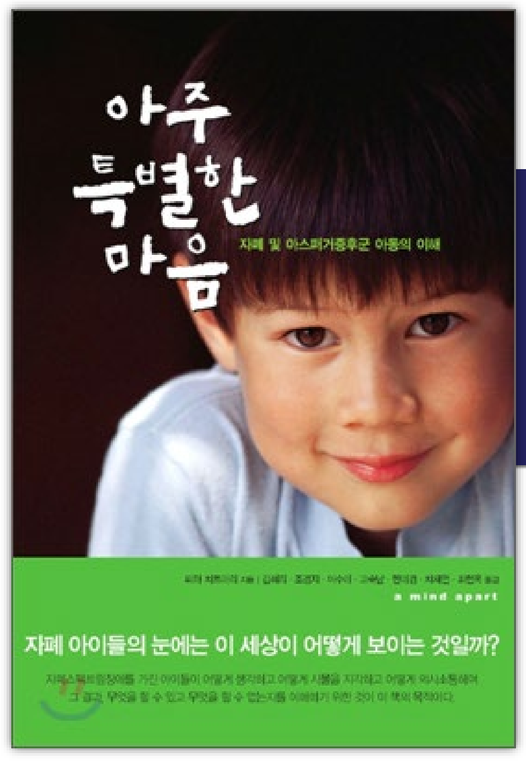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용



아스퍼거 패밀리가 사는 법

크리스티 사카이, 박현옥(옮김), 한울림 스페셜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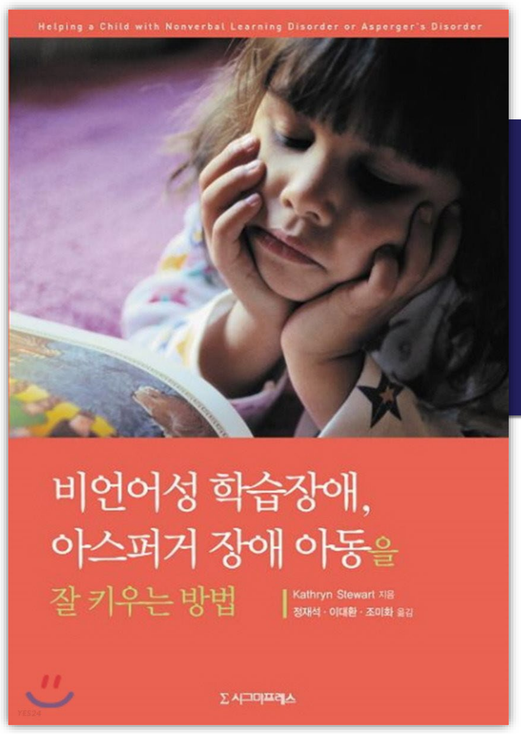


아주 특별한 마음 (자폐 및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이해)(절판)

피터 차트마리, 김혜리(옮김), 시그마프레스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성인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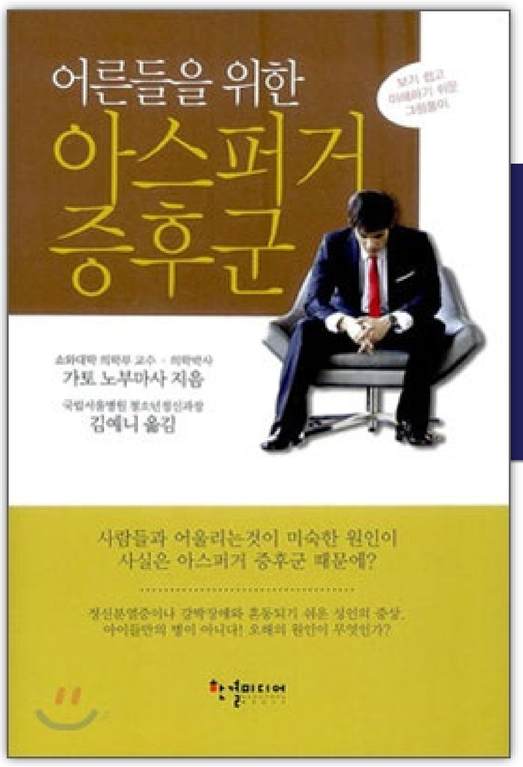
부모 및 일반 교사



비언어성 학습장애, 아스퍼거 장애 아동을 잘키우는 방법

카트린 스튜어트, 이대환과 정재석(옮김), 시그마프레스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성인 누구나



어른들을 위한 아스퍼거 증후군

가토 노부마사, 김예니(옮김), 한결미디어

- 자폐 성인, 그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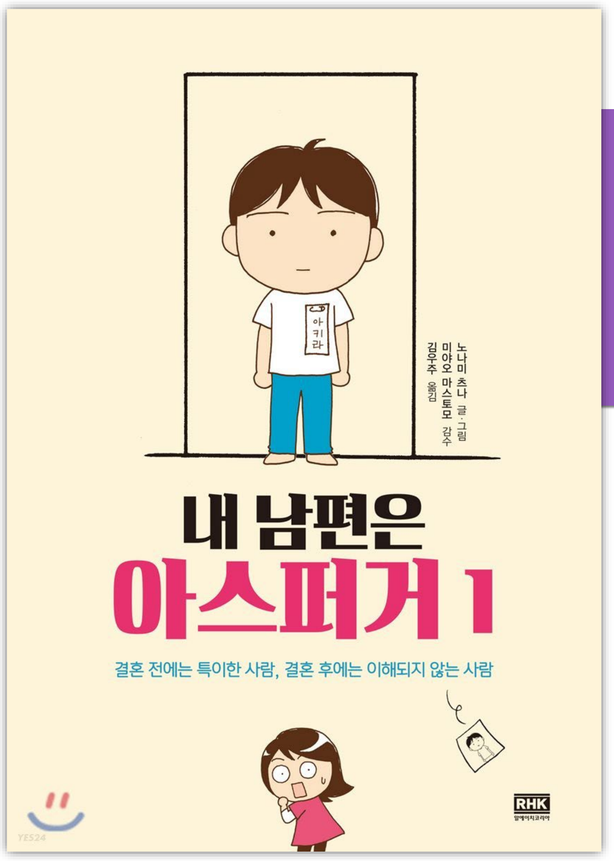
부모 및 일반 교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1~14) (절판)

토베 케이코, 자음과 모음

- 자폐 자녀의 부모, 성인 누구나



내 남편은 아스퍼거(1-3)

노나미 츠나, 김우주(역), 알에이치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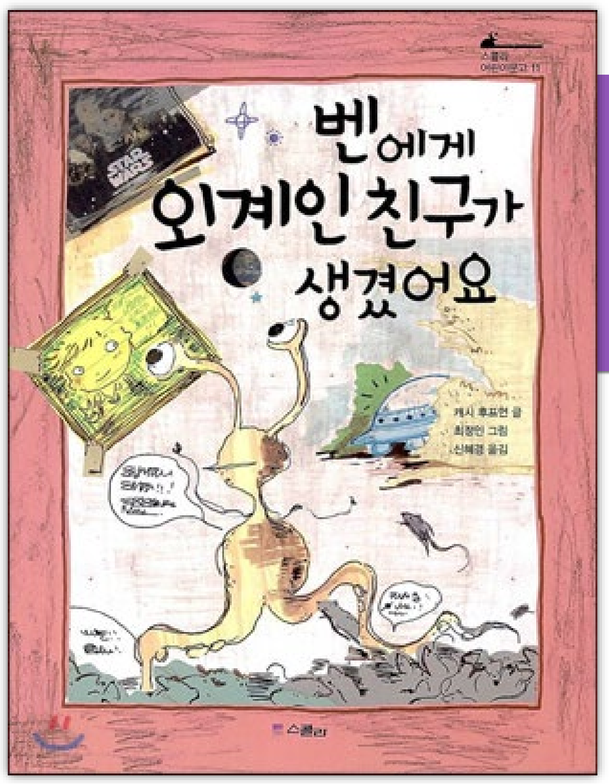
- 자폐 성인, 자폐성인의 가족, 성인 누구나



도토리의 집(1~7) (절판)

야마모토 오사무, 김은진(역), 한울림스페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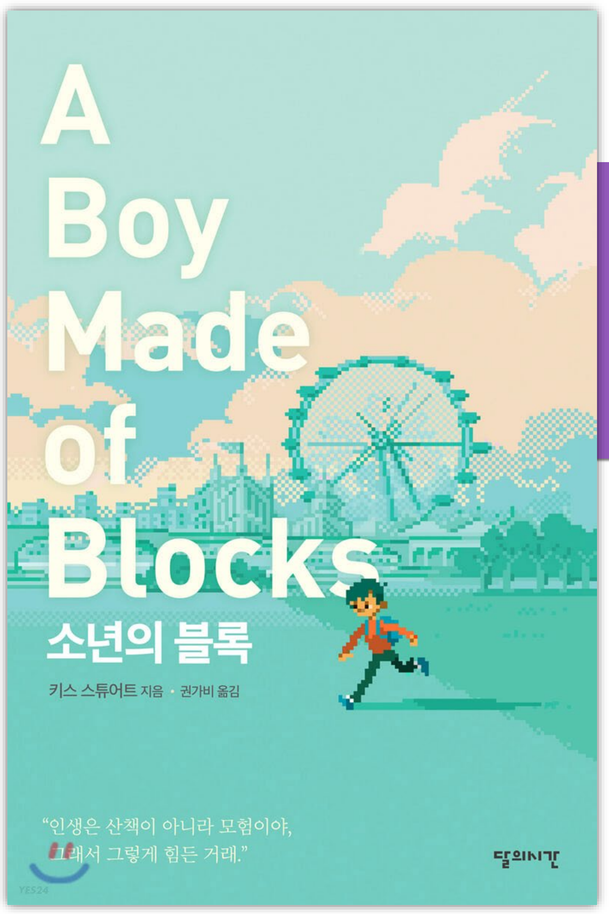
- 자폐자녀의 가족, 성인 누구나



벤에게 외계인 친구가 생겼어요 (절판)

캐시 후프먼, 최정인(그림), 신혜경(역), 스콜라

- 학령기 자폐 아이의 또래, 교사



소년의 블록(A Boy Made of Blocks)

키스 스튜어트/ 권가비 옮김, 달의 시간

- 자폐 청소년, 자폐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성인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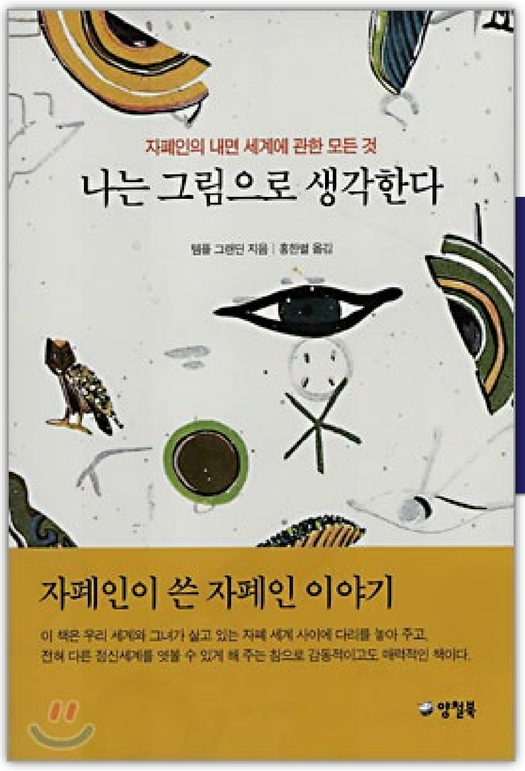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마크 해던, 유은영(역), 문학수첩 리틀북스

- 자폐 청소년과 성인,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성인 누구나

그림책, 만화, 동화, 소설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템플 그랜딘, 홍한별(옮김), 양철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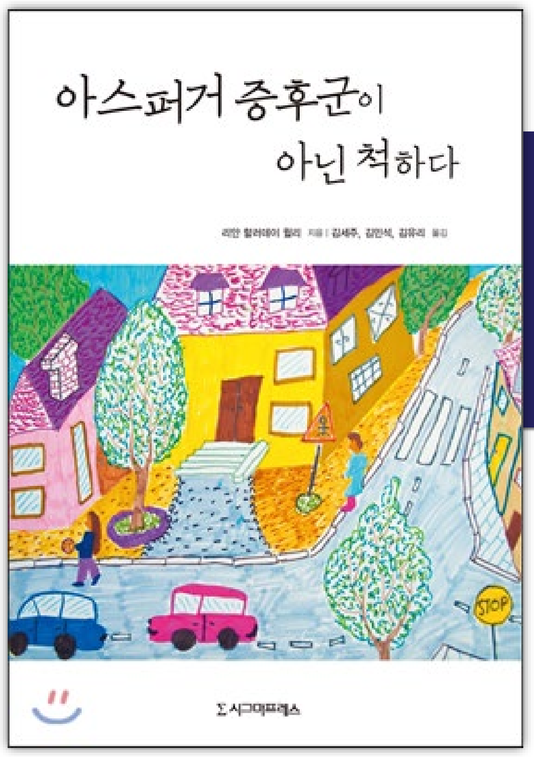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자폐 성인, 성인 누구나



별종, 괴짜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

루크 잭슨, 이주현(옮김),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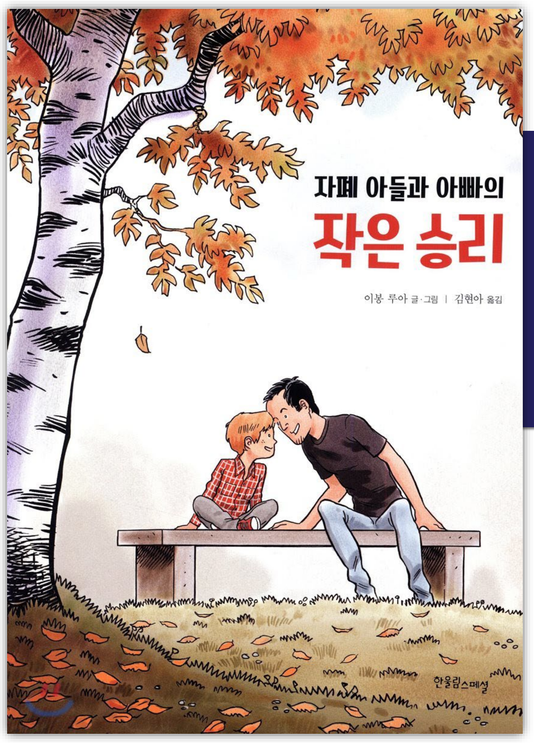
- 자폐 초등 고학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성인 누구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닌 척하다

리안 할러데이 윌리, 김민석과 김유리(옮김), 시그마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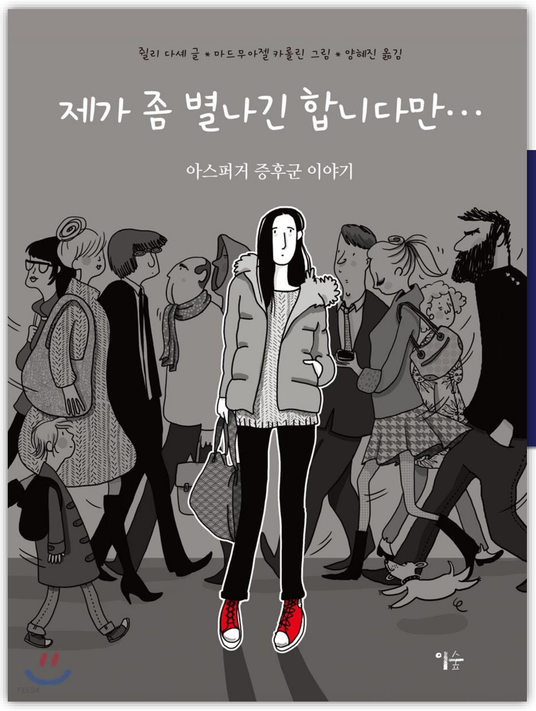
- 자폐 청소년과 성인, 그들의 가족 등



자폐 아들과 아빠의 작은 승리

이봉 루아, 김현아(옮김), 한울림스페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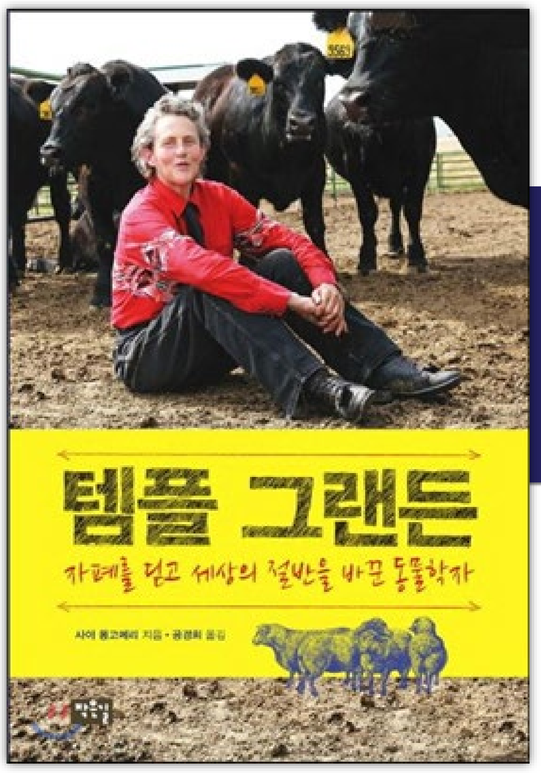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성인 누구나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아스퍼거 증후군 이야기)

줄리 다셰(글), 마드무아젤 카롤린(그림), 양혜진(역), 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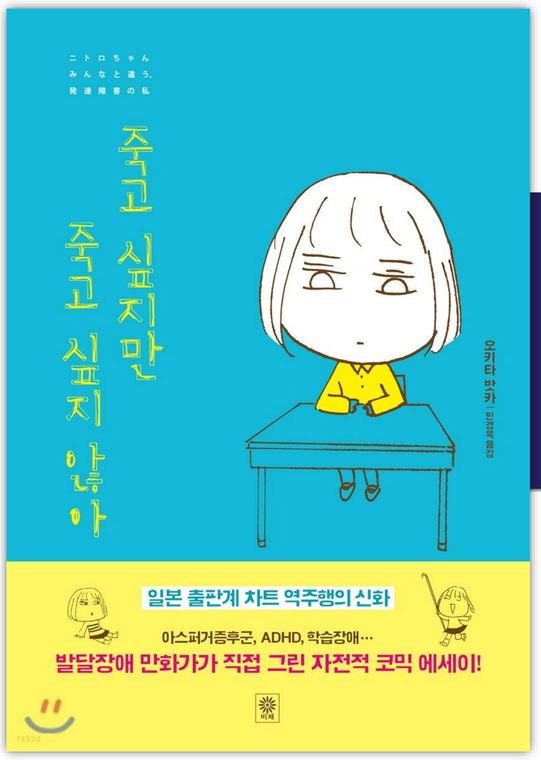
- 자폐 성인, 그들의 가족, 성인 누구나



템플 그랜든 (자폐를 딛고 세상의 절반을 바꾼 동물학자)(절판)

사이 몽고메리, 공경희(옮김), 작은길

- 자폐 청소년과 성인, 그들의 가족, 성인 누구나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아

오키타 밧카, 민경욱(옮김), 김영사

- 자폐 성인, 그들의 가족, 성인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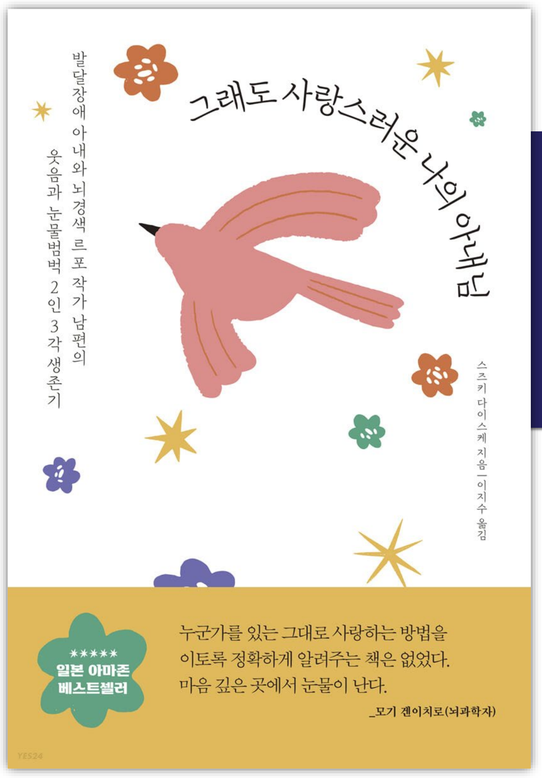


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비장애형제 자조 모임 '나는', 한울림 스페셜

- 자폐인의 비장애 형제, 그들의 부모, 성인 누구나

자서전, 평전



그래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님

스즈키 다이스케, 이지수(옮김), 라이팅하우스

- 자폐 성인, 그들의 가족, 성인 누구나



내가 안 보이나요?

실벤느 자우이(글), 시빌 들라크루아(그림),
김현아(옮김), 한울림스페셜

- 자폐인의 비장애 형제, 그들의 부모,
  성인 누구나

자서전, 평전



고양이는 모두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캐시 후프먼, 김선주(옮김), 고슴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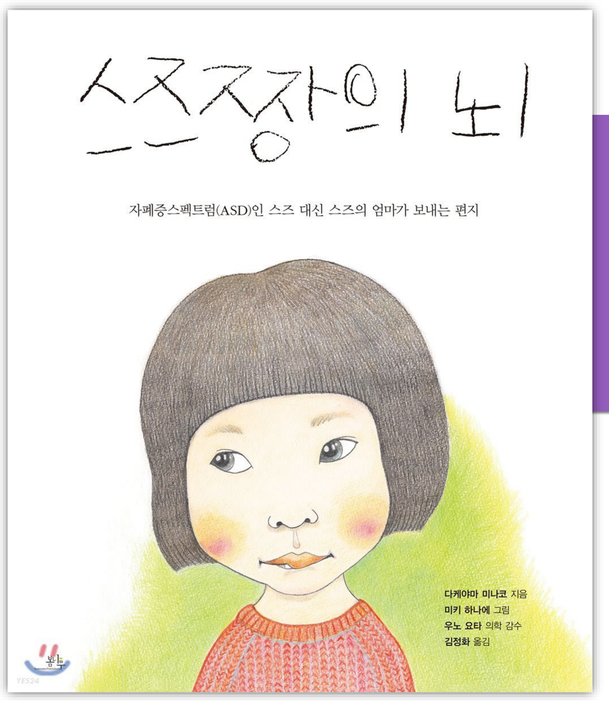
- 자폐 학령기 이상의 또래, 교사, 부모, 성인 누구나



검정고무신 기영이의 자폐친구 사귀기

이민정,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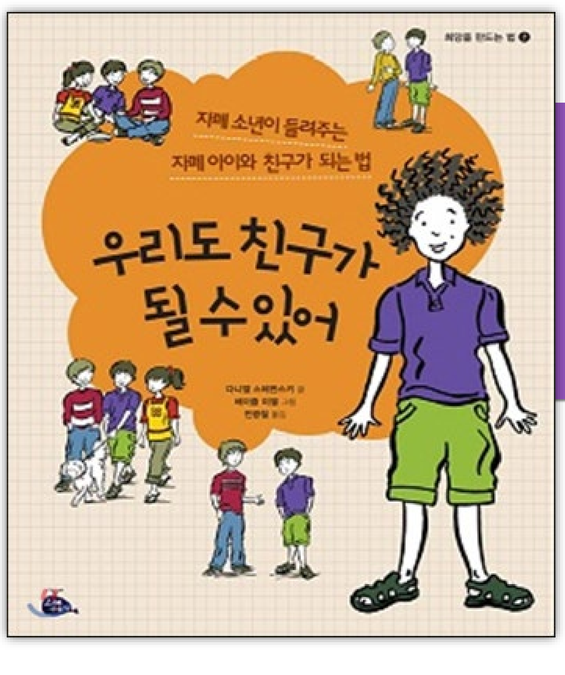
- 자폐 학령기의 또래, 교사, 부모, 성인 누구나



스즈짱의 뇌

다케야마 미나코(글), 미키 하나에(그림), 김정화(옮김), 봄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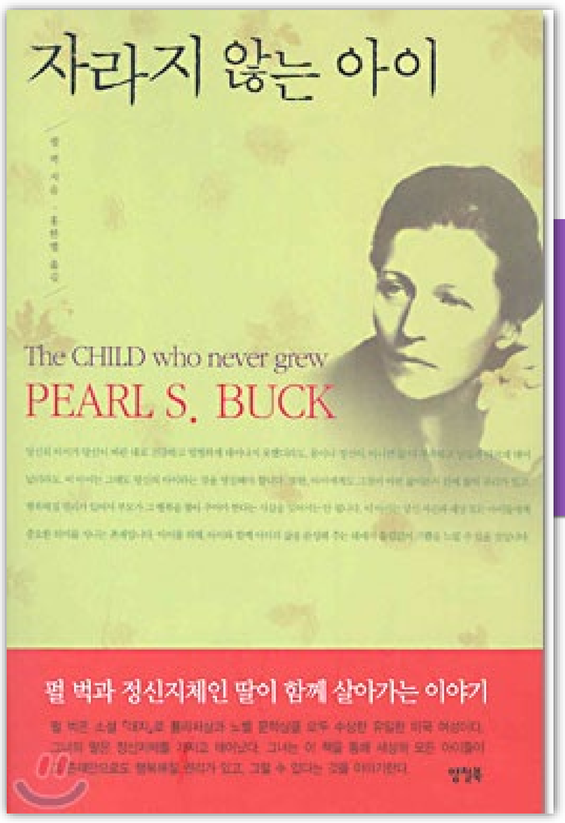
- 발달장애 학령기의 가족(형제 포함), 그들의 또래, 교사, 성인 누구나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절판)

다니엘 스테판스키(글), 헤이즐 미첼(그림), 전광철(옮김), 고래이야기

- 자폐 학령기의 또래, 교사, 가족, 성인 누구나



자라지 않는 아이

펄벅, 홍한별(옮김), 양철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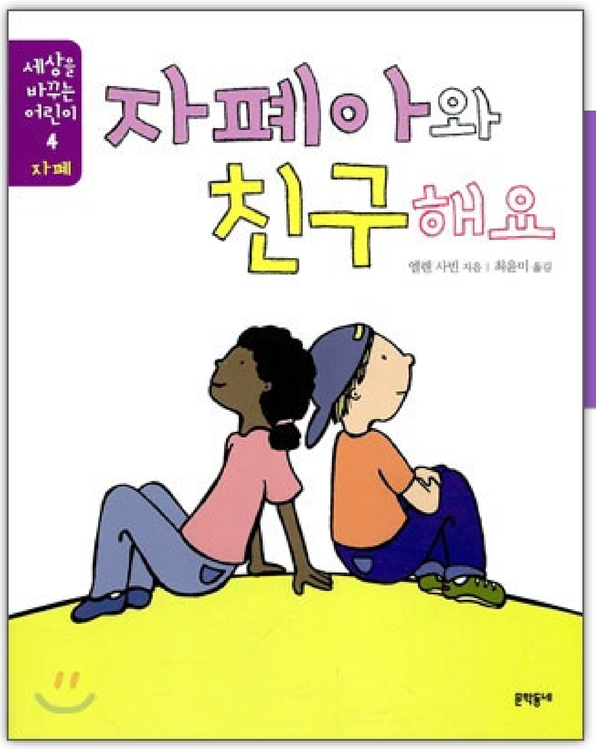
- 발달장애의 부모, 성인 누구나



자폐가 뭔지 알려줄게 (절판)

스테파니 드로리에, 김현아(옮김), 한울림스페셜

- 학령기 자폐 또래, 교사, 성인 누구나



자폐아와 친구해요

렌 사빈, 최윤미(옮김),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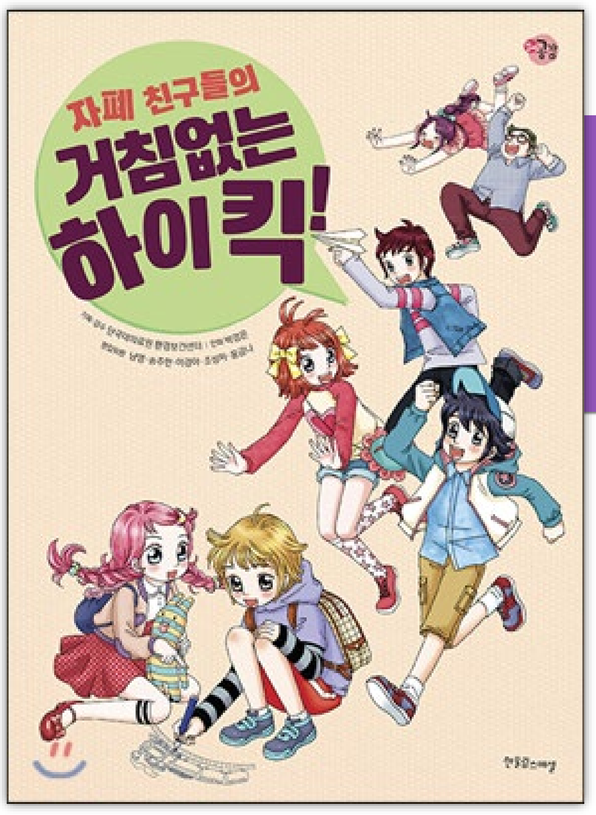
- 자폐 학령기 또래, 교사, 성인 누구나



자폐아이 제노의 뒤죽박죽 하루

이네 반 덴 보쉐, 조선미와 김현정(옮김), 한울림스페셜

- 자폐 학령기의 또래, 교사, 성인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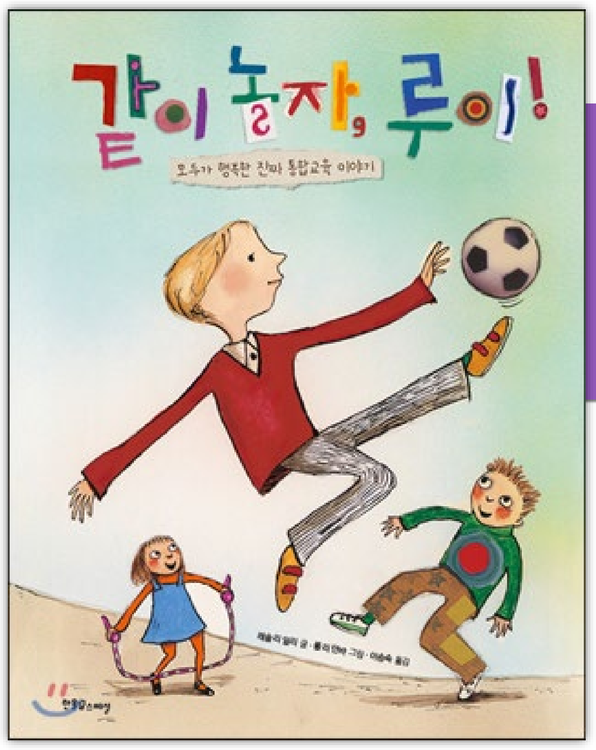


자폐 친구들의 거침없는 하이 킥!

박경은, 한울림스페셜

- 자폐 학령기의 또래, 교사, 성인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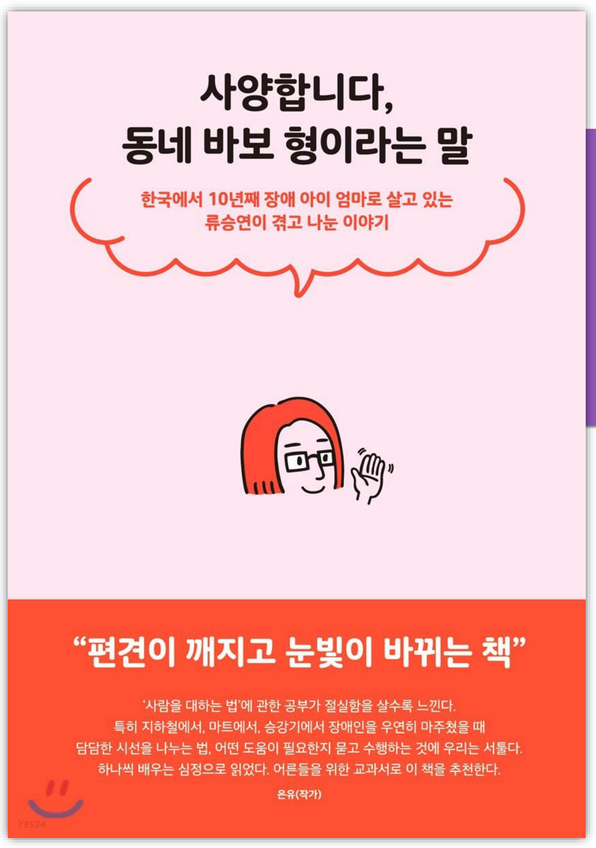
장애인식교육



같이 놀자, 루이

레슬리 일리(글), 폴리 던바(그림), 이승숙(옮김), 한울림스페셜

- 자폐 학령기의 또래, 교사, 성인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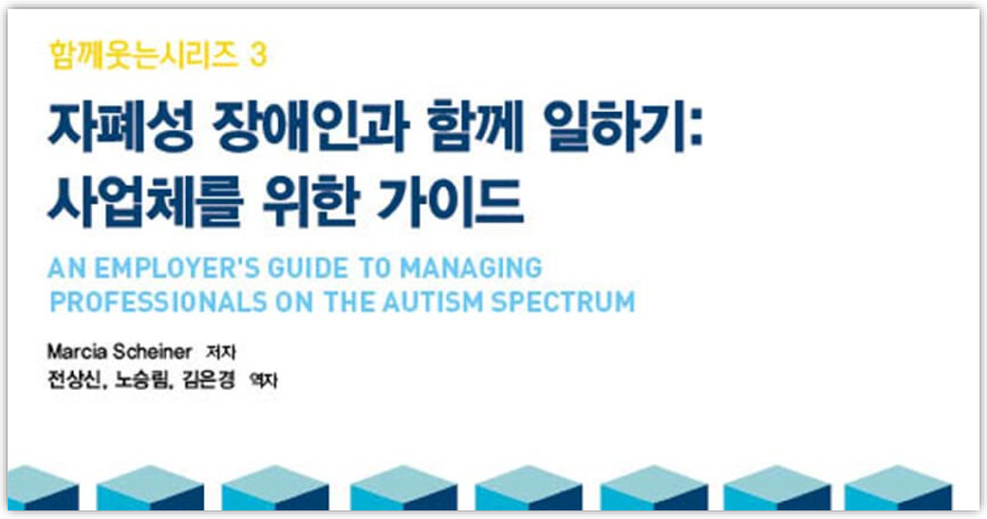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

류승연, 푸른숲

- 발달장애인의 주변인, 성인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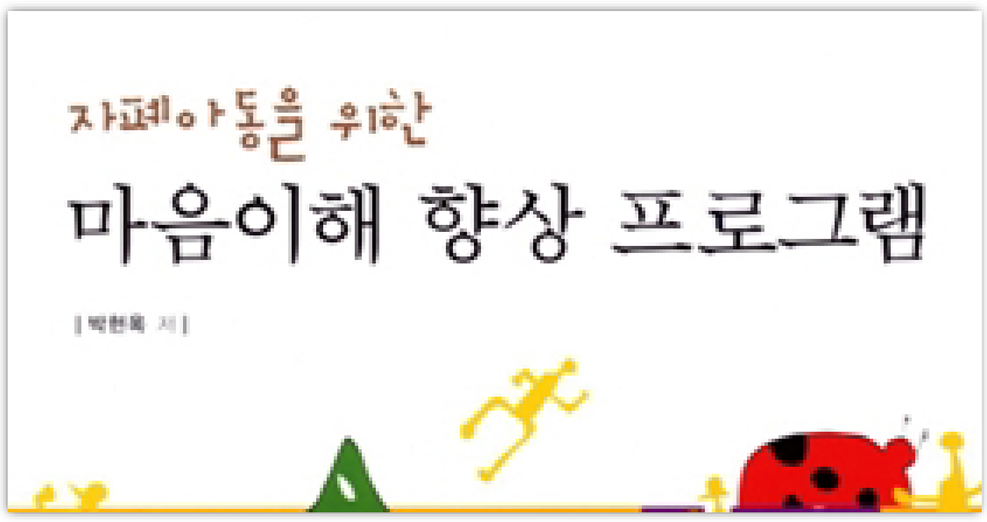
교과서, 교재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마르시아 쉐이너, 전상신, 노승림과 김은경(옮김), 에이스북

- 자폐 성인, 그들의 주변인, 성인 누구나



자폐아동을 위한 마음이해 향상 프로그램

박현옥, 학지사

- 자폐 학령기 교사, 치료사, 부모



마음읽기 가르치기 워크북

(자폐스펙트럼 아동 교육지침서)

코헨 외 공저, 김혜리(옮김), 시그마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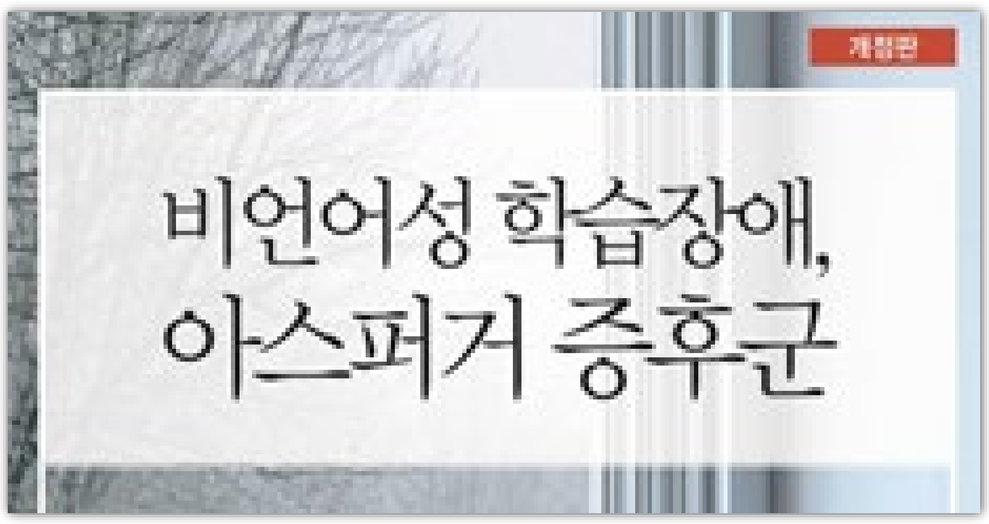
- 자폐 학령기 교사, 치료사, 부모



부모와 함께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사회기술훈련 (PEERS)

프랭켈, 로저슨 공저, 유희정(옮김), 시그마프레스

- 자폐 청소년기 부모, 교사, 치료사



비언어성 학습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신석호, 시그마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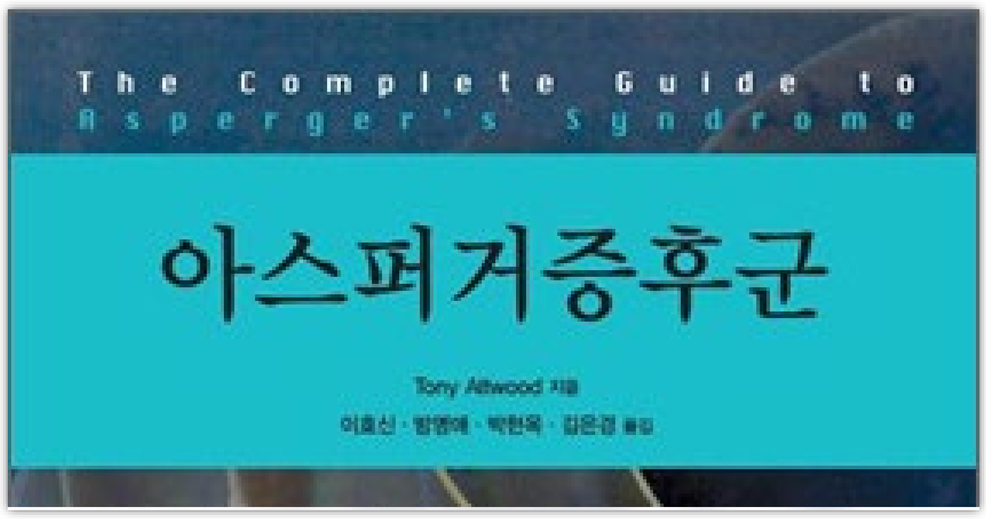
- 자폐 학령기 부모, 교사, 치료사



사회성 이야기 158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을 위한)

캐롤 그레이, 이주현(옮김), 학지사

- 자폐 학령기 부모, 교사, 치료사



아스퍼거증후군 (절판)

토니 애트우드, 이효신(옮김), 시그마프레스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치료사



자폐스펙트럼장애A to Z

양문봉, 신석호, 시그마프레스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치료사



자폐아동과 숫자로 대화하는 5점 척도 (품절)

카리 던 부론, 양명희(옮김), 시그마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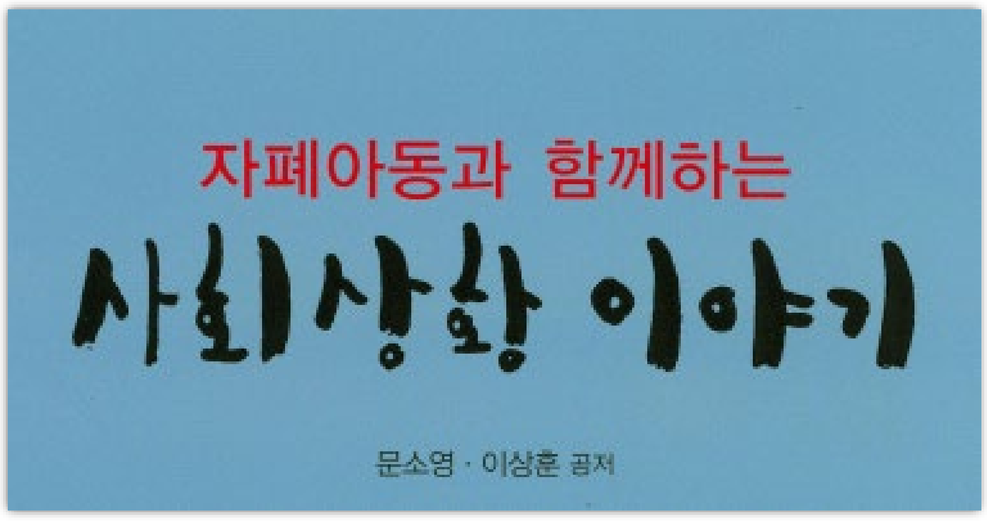
- 자폐 학령기 부모, 교사, 치료사



자폐아동도 마음 읽기를 배울 수 있다

하울린 외, 김혜리(옮김), 시그마프레스

- 자폐 학령기 부모, 교사, 치료사



자폐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상황이야기

문소영, 이상훈, 학지사

- 자폐 학령기 부모, 교사, 치료사



자폐아동을 위한 사회성 이야기 그림책

제드 베이커, 이정미(옮김), 시그마프레스

- 자폐 학령기 부모, 교사, 치료사



자폐장애

조수철 외 공저, 학지사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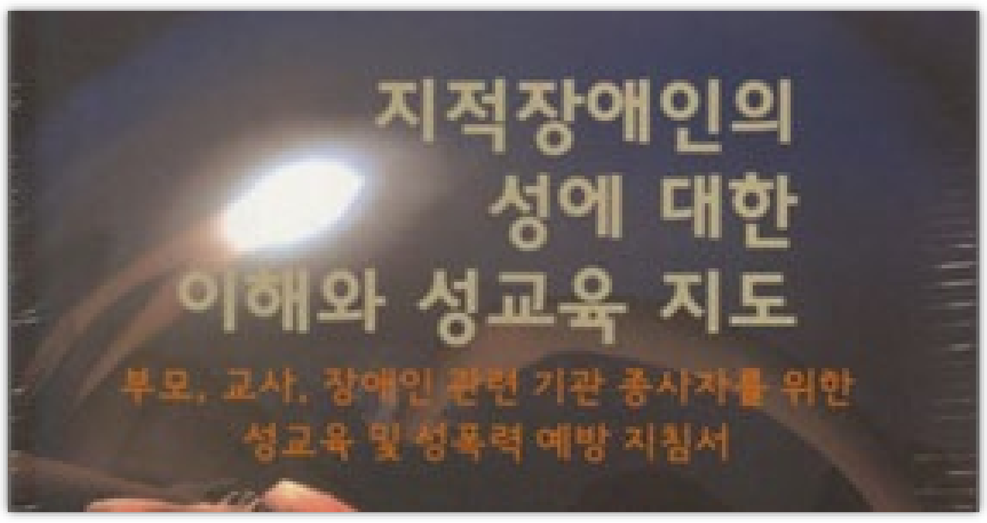


자폐증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훈련

(부모용, 치료자용)

카렌 베어스, 김붕년(옮김), 학지사

- 자폐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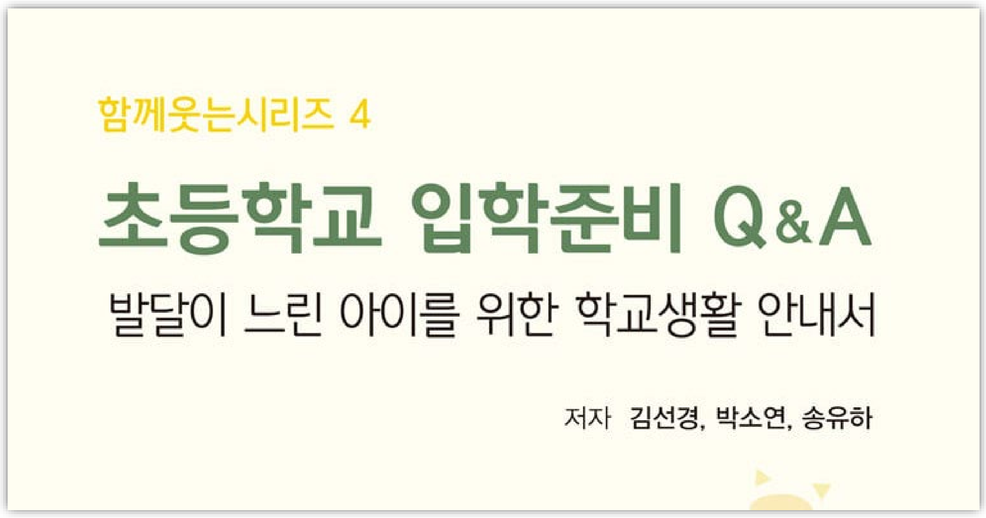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성교육 지도

에릭 보쉬, 김영숙(옮김), 박학사

- 발달장애 초등 고학년 부모, 교사, 치료사, 당사자 성인

교과서, 교재



초등학교 입학준비 Q&A

김선경 외 2명 공저, 에이스북

- 발달장애 학령전기 부모, 치료사



파워카드기법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위한) (절판)

엘리사 개그논, 이정미(옮김), 시그마프레스

- 자폐 학령전기 부모, 교사, 치료사



ABA 실천매뉴얼

후지사카 류지와 마쓰이 에리코, 김상민 외 2명(옮김), 에이스북

- 자폐 학령전기 부모, 교사, 치료사



PEERS 성인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엘리자베스 랭슨, 유희정과 김주현(옮김), 시그마프레스

- 자폐 성인, 그들의 부모, 치료사





자녀의 연령에 따른 실천적인 책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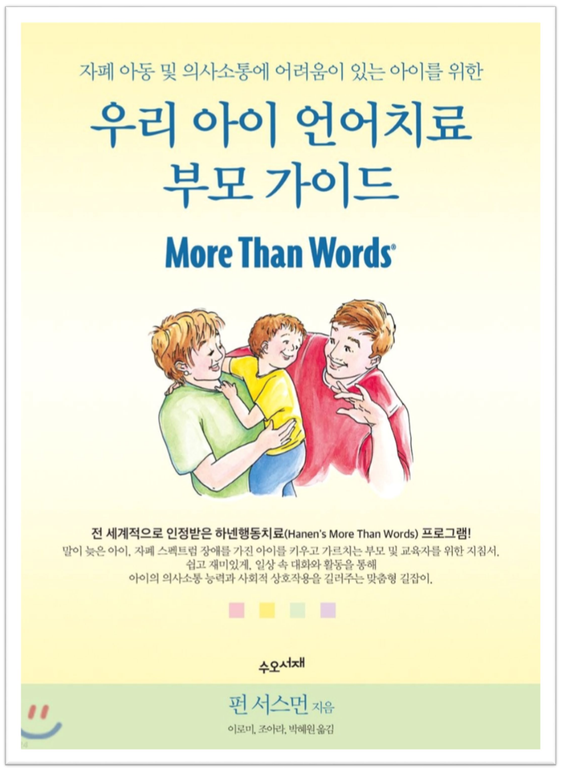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



진료실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의심되는 2-3 살 유아 아동을 둔 부모님께 우선 권해드리는 첫번째 책은**[자폐아이 생활 백서]**입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키운 경험과 지식이 결합된, 일본 책 특유의 실용적이고 단순한 설명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자 자폐아 아들을 둔 엄마가 쓴 “자폐아와 즐겁게 생활하는 방법” 안내서입니다. 자폐아 아들을 둔 저자는 아이가 두 살이 되자 치료교육을 시작했다. 보통 아이들과 다른 자폐아이들만의 특성, 예컨대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과민한 촉감을 가진 점, 시각 정보에 민감한 점 등을 파악해가며 그 특성에 맞춰 아이에게 머리 감기, 손톱 깎기, 형제 간 다툼 줄이기, 언어교육, 배변 가리기, 자전거 타기, 각종 놀이 등 40 여 가지에 이르는 생활의 기술들을 가르친 경험담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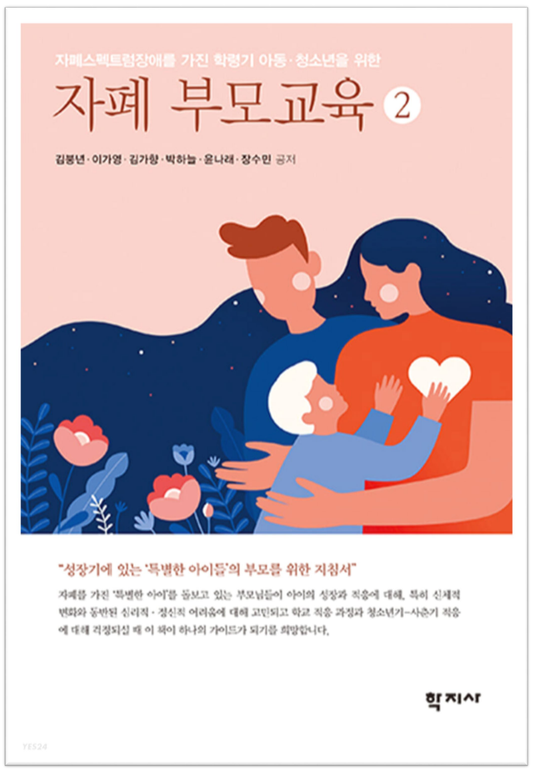


두 번째 책은 언어 자극을 어떻게 집에서 줄 수 있는지 설명하는 **[우리 아이 언어치료 부모 가이드 more than word]** 입니다. 신한카드에서 후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함께웃는재단에서 만든 책입니다. 예전에 하넨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일부가 학지사에서 번역되어 나온 적이 있는데 절판이 되어서 아쉬웠는데 그 책보다 훨씬 자세하네요. 이 책처럼 구체적으로 부모가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책들이 많이 번역소개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가 치료사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것이지 부모가 치료자나 선생님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절박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책은 너무 소중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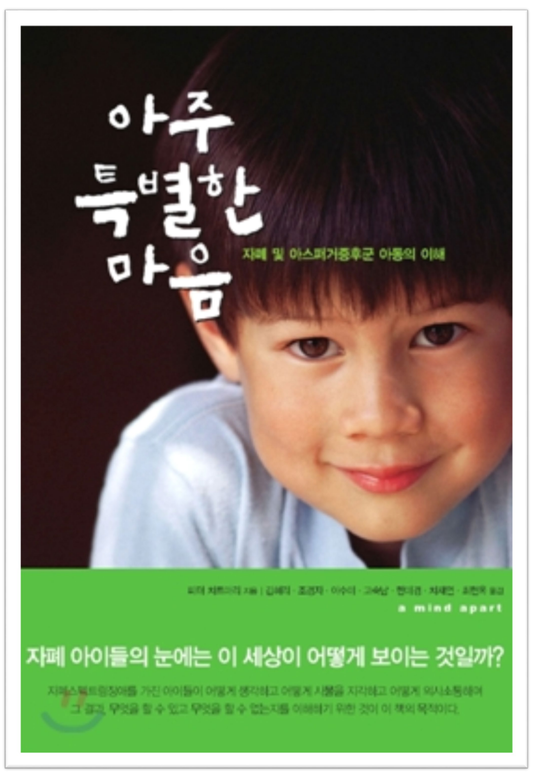


그렇지만 자기만의 경험이나 짧은 지식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고, 또는 치우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책도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이 함께 집필한 **[자폐부모교육 1,2]** 기본적인 치료와 검사 그리고 대체 의학적 접근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부모님들은 처음 학부모가 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이나 기타 준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함께 웃는 재단에서 펴낸 [초등학교 입학준비 Q&A]가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방대한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서 참고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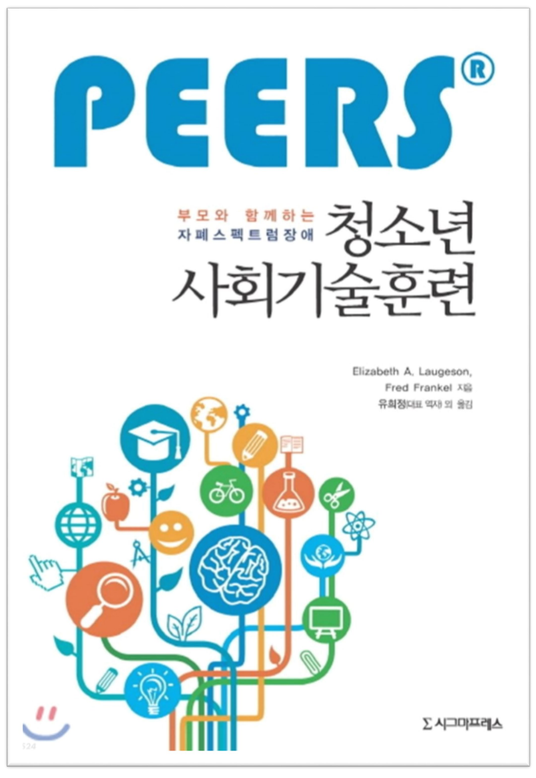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을 둔 부모님에게는 **[자폐 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열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새 학년이 되어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특성에 대해 A4 용지 1장 정도의 분량으로 설명드리는 '자기 소개서'를 작성해서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자폐 어린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열가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도 자폐 아동의 어머니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편안한 어조로 기술하여 단순한 진단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설명하는 연습이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초안을 매년 다듬어지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고기능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아시고 싶다면 캐나다 소아정신과 의사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아주 특별한 마음]**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기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에게는 **[별종, 괴짜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소개드립니다. 13살 짜리 남자 아이가 쓴 자서전으로 타인이 우리 아이들을 밖에서 관찰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밖을 바라본 실제적 경험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진단명은 꼬리표가 아니고 이정표라는 철학적 방향까지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비록 치료자용 교본으로 만들어져서 부모님들이 바로 읽고 적용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PEERS 부모와 함께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사회기술훈련]**은 미국 UCLA 대학에서 개발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효과가 논문으로도 입증된 체계화된 사회기술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회기술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개략적인 감을 부모님들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ASD 관련
영상·채널
ON AIR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우아해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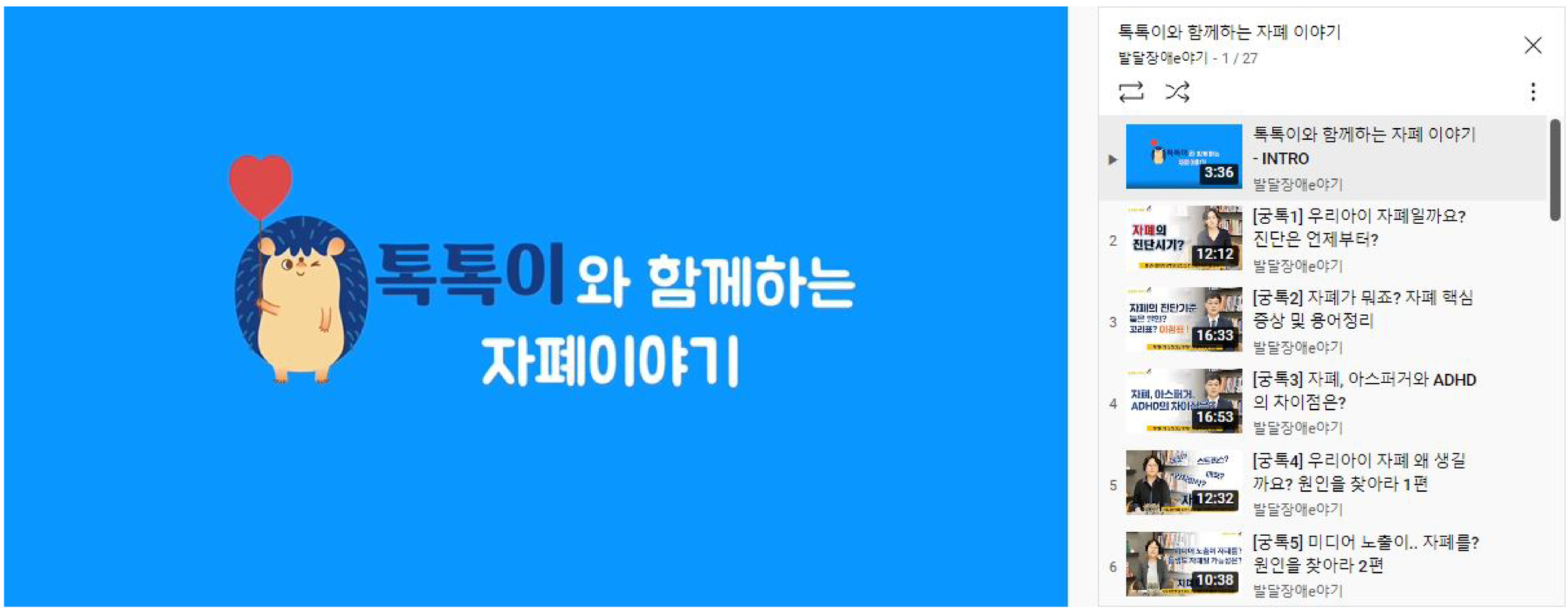
-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회 공식 유투브 채널로 2022년 6월 시작됨.
- 대학병원 교수들과 지역전문의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로 근거기반의 내용들이 꾸준히 업로드 될 예정

유튜브 검색 창에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를
검색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c2258li2I4AUN25plxXFTQ



함께 웃는 재단 * 대한자폐스펙트럼장애연구회



톡톡이와 함께 하는 자폐 이야기_ 발달장애 E 야기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의,진단,치료,예후까지 근거중심의 정보들을 직접 전달하는 컨텐츠
-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처음 접하시는 보호자들 및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유튜브 : 발달장애 E야기

발달장애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의 정보나눔

www.smiletogether.or.kr

우리어린이

우리동네 어린이 병원

유희정 교수님 & 우리동네 어린이병원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 자폐 및 언어발달을 포함한 발달관련 정보들
- 분당 서울대 유희정 교수님 & 우리어린이 소아정신과 박소영 전문의가 함께 제작한 자폐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시리즈 총 4편

유튜브 검색 창에
“우리어린이”를
검색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woZsctXZLnJOG-Tu6TZ5g



의학채널, 비온뒤



#자폐 #자폐스펙트럼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우리 아이에게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조회수 2.5천회 • 3개월 전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성 발달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며 흥미나 활동에 제한 ...



"자폐스펙트럼장애"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조회수 7.6천회 • 스트리밍 시간: 3개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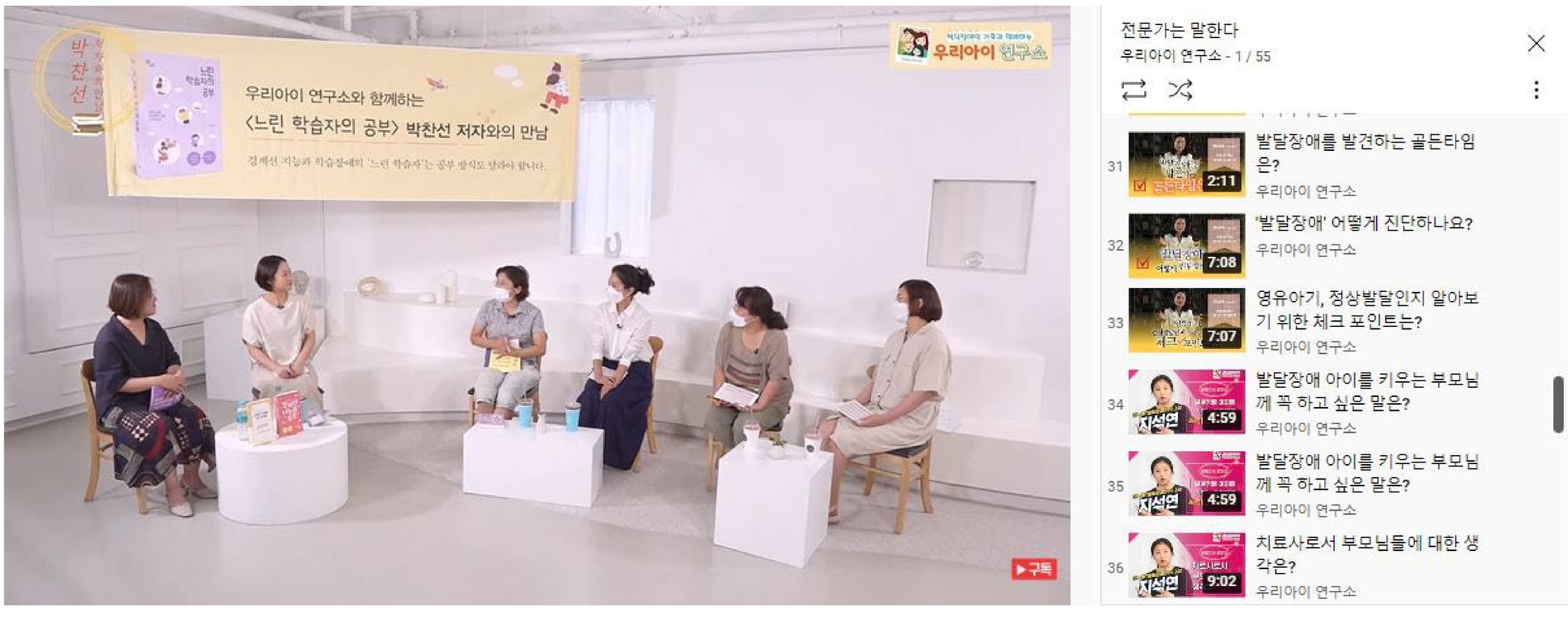
의학채널 비온뒤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지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c2258li2l4AUN25plxXFTQ



우리아이 연구소



-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채널
- 각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제작한 영상
- 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이 참여

https://www.youtube.com/channel/UCvPWT1uGFsNA9Xd-3WL8kwA

그 외 영상들 (뉴스 등)



[TED - 템플 그렌딘]
세상은 왜 자폐를 필요로 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dN76zYLL8po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달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적 접근

https://www.youtube.com/watch?v=uJScRKv4Wn0



[발달장애 명의]
병원 가? 기다려?
자폐증 의심될 때 기억해야 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bfzPI5PCqAc



[자폐스펙트럼장애 명의]
초기에 발견하려면
'이 징후' 놓치지 마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W_5SQcXkR4I



미디어 속의 Autism



The big bang Theory

빅뱅이론

(2007- 2019)

미국 CBS에서 방송된 시트콤 드라마 12시즌으로 종결

천재 물리학자인 주인공과 친구들의 이야기. 사회성이 부족한 주인공과 친구들이 함께 지내는 모습을 담아낸 가벼운 시트콤



The A world

에이워드

(2018, 영국 BBC)

다섯살 아이 “조”가 자폐진단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 ‘어쩌면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던 아이가 알고 보니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으면서, 그 과정과 변화하는 가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



Atypical

별나도 괜찮아

(2017, 넷플릭스)

오티즘을 가진 고등학생의 고민, 연애등의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와, 주인공만을 위해 살아가던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Love on Spectrum

러브 온 스펙트럼

(2019, 호주)

리얼리티 TV프로그램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젊은이들이 로맨스를 향한 모험을 시작한다. 낯설어도 괜찮아, 알쏭달쏭한 게 당연해!

영화 속 Autism

템플 그랜딘 (Temple Grandin , 2010)
빅쇼트 (The Big Short , 2015)
메리 앤 맥스 (Mary And Max , 2009)

말아톤 (2005)
굿닥터 (2013)
그것만이 내 세상 (2018)
증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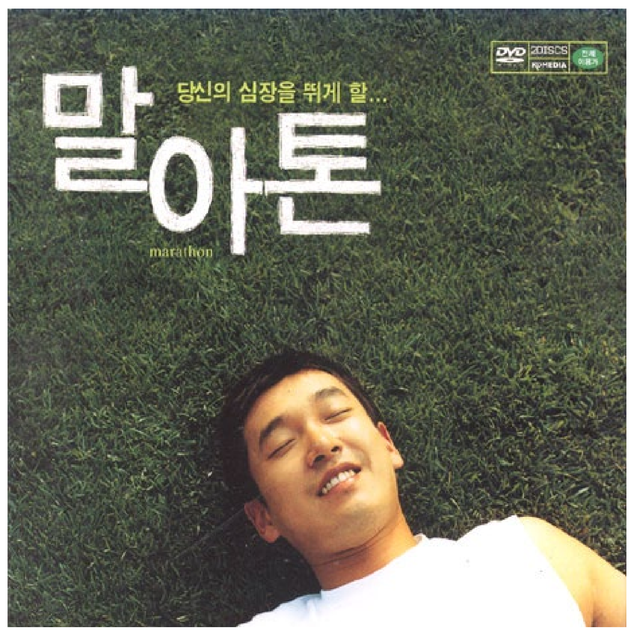








새해 첫 웃음과 감동
그것만이 내 세상








index.html.jj /IDBAp
readme.model.jj /IDE
TODOIDB
Content
themes
Site.html
todomodel.css
Images
Properties
Scripts
app
todo.func...
todo.back...
todo.repo...
todo.view...
_reference...
Section Mark
42
SEARCH

도움이 될 웹사이트 안내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가 홈페이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www.kacap.or.kr

ADHD 바로알기

www.adhd.or.kr

ADHD에 대한 홈페이지지만 각 지역에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 검색과 약물에 대한 정보가 있음

한국자폐학회

www.autism.or.kr

발달장애를 위한
단체 홈페이지



함께 웃는 재단

http://www.smiletogether.or.kr/

한국자폐인사랑협회

www.autismkorea.kr

Autism speaks (미국)

www.autismspeaks.org/korean-resources

Autism links (영국)

www.autismlinks.co.uk



활동 지원 관련 홈페이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블루터치

www.blutouch.net

서울특별시교육청PBS
(긍정적 행동지원)

www.seoulpbs.sen.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교육 관련 홈페이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산하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www.nise.go.kr/onmam/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이트

부모 주도의 모임



서울시 발달장애 정보플랫폼 보다센터

www.boda.or.kr

전국장애인부모연대

www.bumo.or.kr

한국장애인부모회

www.kpat.or.kr

아스퍼거 가족 모임방 (네이버 카페)

www.cafe.naver.com/asperger.café

자폐(발달장애)정보나눔터 (다음 카페)

www.cafe.daum.net/jape1234



자폐스펙트럼장애 QnA

1

자폐증, 개선될 수 있나요?

현재까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완치하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중재법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핵심증상을 완화하거나, **적응적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치료와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진단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될 수도 있으나, 특성은 경미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완치, 혹은 진단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얼마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삶을 사회 안에서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기능수준과 예후는 만 5~6세경에 검사된 IQ와 언어구사능력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 **아동의 상태에 적합한 집중적인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치료원칙이 중요합니다.

2

만 5세가 넘어가면 치료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생후 만 60개월까지가 인간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며, 발달지연이 관찰되면 가능한 빨리 치료적 개입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시기를 골든 타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더라도, **해당연령에 맞는 치료적 요구가 있고, 거기에 따른 치료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이 만 5세를 넘었다고 해도, 아동에게 맞는 개별화된 치료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3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유전인가요?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을 기반으로 하는 선천성질환입니다. 즉,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이나 애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쌍둥이연구에 따르면, 현재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약 15%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와는 관련성이 있으나, **멘델의 법칙으로 유전되는 단일 유전질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발현에 유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부모님께 책임을 지워드리기 위한 결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유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내과적 정신과적, 유전적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의 가족력이 있거나 특이한 신체적 소견이 보일 때, 혹은 경련증상을 보일 때에는 취약 X 증후군이나 결절성경화증, 앤젤만 증후군, 프래더-윌리 증후군 , 다운 증후군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유전자 관련 평가가 필요합니다.

4

아이가 자폐를 진단받은 후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1

자녀가 자폐를 진단받는 경우, 부모는 당연히 충격과 부정,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부들이 자폐 장애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임신 시기의 스트레스나 식습관, 혹은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가정 내 불화 등이 자폐장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를 한다거나, 아내나 남편의 가족력을 의심해 보게 되는 상황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다양한 유전과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우연히 발생한 신경발달문제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폐 원인을 부모 각자로부터 찾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며, 이러한 **무의미한 작업들로 죄책감을 포함한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는 것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대처자원을 줄일 뿐**입니다.

특히 아이가 자폐진단을 받게 되는 영유아기는, 부모 자녀간의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통해 뇌발달이 촉진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정신적 안녕을 꾀하여 부모 자식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늘임으로써, 자폐 아동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4

아이가 자폐를 진단받은 후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2

부부 중 한 명이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나머지 한 명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아동을 돌보는 일에 더욱 서툴게 됨으로써 비난을 받고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통한 개입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며, 아동을 과잉 보호하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만듦으로써 아동의 행동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일으켜 가족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신과전문의와의 상의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십시오.

자폐아동만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중요합니다. 자폐 아동도 가족 구성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야 자폐아동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의 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즉시 정신과적 진료을 받아주십시오.

5

자폐인의 형제 자매도 검사를 받아 봐야 하나요?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일란성 쌍둥이간 일치율이 70~90%, 이란성 쌍둥이간 일치율이 10% 전후로 보고되는데,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멘델의 법칙으로 유전되는 단일 유전질환은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전적 위험인자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자폐인의 형제자매에서 인지기능장애나 사회적의사소통장애 등 넓은 범위의 자폐 표현형은 비교적 흔하게 보고**되며, 실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발생할 위험도도 일반인구의 약 25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폐인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유전자 검사나 뇌파 검사 등 특정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폐자녀의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 이들은 자폐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18~24개월 즈음에 경험이 풍부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발달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이 사회관계, 주의력, 학습, 언어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빠른 소아정신과 진료**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6

자폐인의 형제자매를 돌볼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점 -1

자폐아동에게는 필요한 많은 치료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에 부모가 상당부분 함께 참여해야 하므로, 비자폐자녀가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비자폐 자녀가 토로하는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확인하고 수용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자폐자녀 경우, 보통의 친구들에게 일상으로 여겨지는 많은 활동들(여행, 친구초대 등)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한 경우 **비자폐자녀를 위한 시간을 따로 할애**해주십시오.

비자폐자녀의 생활범위가 지나치게 침범되어서도 안됩니다. 자폐자녀가 비자폐자녀의 물건이나 공간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 이를 자폐증상으로 치부하여 비자폐자녀의 이해를 기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폐자녀의 공격적 행동이나 지나친 상동행동 등이 비자폐자녀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 이는 적극적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조절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공간과 삶의 질을 존중하는 일은, 자폐 자녀의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습득해야 하는 사회적 기술이기에 '가족이니까 이해하자'라기보다는 '가정내에서부터 연습하자'라고 보는 시각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6

자폐인의 형제자매를 돌볼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점 -2

간혹 형제자매가 있어 자폐자녀의 치료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함을 아쉬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자폐 형제자매의 존재는, 자폐자녀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응기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자폐자녀 역시, 자폐형제자매를 통해 어려움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비자폐자녀의 정신건강과 자폐자녀의 정신건강은 모두 동일하게, 소중하며,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두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소아정신과전문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주십시오.

7

아이가 어릴 때 지적장애로 판정을 받았는데, 요즘 아이를 보면 자폐스펙트럼장애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진단이 잘못된 것일까요?

소아청소년은 발달 과정 중에 많은 변화가 있고, 전반적으로 발달의 지연이 있으면 어릴 때 평가가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으로 인해 증상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여, **영유아기에는 언어장애나 지적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이후 진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기에 발달장애의 경우, 만 6세 미만에 장애등급을 받으면 만 6~12세 사이, 만 12~18세 사이에 장애 진단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진단할 수 있으나, **자폐스펙트럼장애라면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진단명과 관계 없이 발달이 느린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된 발달의 개선을 촉진하고, 해당 시점의 문제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개별화되고 집중적인 조기특수교육이 필요합니다.

8

상담센터에서 아이가 자폐스펙트럼장애라서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고, 눈도 잘 안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불안이 높고 우울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대인관계를 회피한다고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발달력을 자세히 물어서 시간적인 변화를 보고, 현재 임상적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발달의 지연,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여, 상동행동, 자신만의 관심사 추구 등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우울증과 겹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서 우울증으로 주진단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우울증, 불안장애등의 **다른 정신질환의 유병율이 일반인구보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에 의해 이들 공존 질환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존질환은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들을 심화시키고, 당사자와 주변인의 삶의 질과 치료중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우리 아이는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자폐라고 진단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장애는 흔히 동시에 나타나나, 반드시 공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폐스펙트럼 아동의 의사소통기능은 단순히 표현언어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화용언어 등 언어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지적 영역에 있어서도, 학과기술영역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지 영역이 균형 있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 유무가 진단에 중요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효율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 결함으로 인해 후천적 학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지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평가의 각 항목적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하된 상태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중재가 필요합니다.

10

치료방법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대부분에게 효과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은 수년 동안 **아동의 발달 및 기능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미국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응용행동분석(ABA)을 기본으로 시행하는 집중적 조기중재 프로그램(주당 20시간 이상)들에 추가적으로 언어치료와 작업치료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숙련된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의 면밀한 진찰을 통해 아동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중재법을 제안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11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각통합치료(토마티스방법, 베라르 방법)은 현재 미국소아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치료입니다. 이외에 **얼렌렌즈, 의사소통촉진기법**은 비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결속치료의 경우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글루텐-카제인 제거 식이, 비타민 보충요법, 정맥 내 면역 글로불린 주사, 백신 비접종, 세크레틴 요법, 킬레이트 제제요법(사망사례보고), 고압산소요법, 두개 마사지 요법** 등의 보완대체의학적 방법들은 보통 권고되지 않으며, 옥시토신의 경우 현재 연구단계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보호자들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건강에 악영향이 없다면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대체보완요법을 병행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돈은 제한적이고, 몇몇 방법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께서는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병원의 담당 의사와 의논을 하고 결정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2

어떤 경우에 약을 먹게 되나요? 그리고 약의 부작용은 없나요?

흔히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증상들은 **공격성, 자해행동, 과잉행동, 집중력저하, 불안, 강박적 행동, 감정조절의 문제, 상동행동, 수면문제** 등입니다. 일부 정신과 약물은 졸리고 나른해지기도 하나, 이는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함으로써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며, 자폐아동에게 사용하는 약물은 대부분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없고, 인지적 저하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약물치료는 마지막 선택지가 아닙니다. 치료 초반부터 시행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 중, 많은 경우 가장 근거가 명확한 방법입니다. 또한 많은 비약물적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로써 **자폐인과 주변인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고통이 줄어들고, 사회참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되시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정신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 주십시오.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자폐 아동에게 필요한 약물 사용이 제한되어서는 곤란합니다.

13

치료실을 다니는 것 보다 일반 아동과 함께 어울리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래와 어울리기 기술은 물론 중요한 중재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점은 **단순히 관계를 개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회기술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동이 **관심 공유하기, 발화, 지시 따르기 등, 보다 전 단계의 사회기술 함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래와 어울리기보다는 보다 기본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된 발달이 주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성문제는, 또래와 함께 하는 경험만으로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동기를 함양시키고,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며, 상황에 사회적으로 적합한 언어와 행동을 취하게 하기 위해 집중적인 특수교육중재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성증진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14

청소년과 성인기에 동반될 수 있는 다른 신경, 정신 질환이 있나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신경, 정신 질환을 많이 동반합니다. 뇌전증(seizure)의 평생 유병율은 20~30%로 5세 이전과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뇌전증을 동반하는 경우 인지기능과 언어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에 속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이 고열과 관계 없이 발생한 고열이 있거나 갑작스런 행동 및 인지기능의 변화, 기억상실, 의식소실, 수면패턴의 변화, 기타 간질과 관련한 증상들이 보이는 경우 뇌전증을 감별하기 위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 특정한 것을 무서워하는 특정 공포증 평생 유병율은 44.3%, 강박증 37.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30.5%, 분리불안장애 11,9%, 주요우울장애 10.1%, 조울증, 범불안장애, 사회 공포증, 반항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파란 색 바탕에 다른 동반 질환의 색깔이 겹쳐지면 다른 색깔처럼 보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적절한 약물치료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과 보호자의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5

ADHD인지 자폐인지 헷갈립니다 -1

자폐스펙트럼장애와 ADHD는 DSM-5의 진단기준 상 '신경발달장애'라는 항목에 속해 있는 질환입니다. 신경발달장애 구성질환들은 공존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30~50%에서 ADHD증상이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 **더욱 심각한 행동문제와 낮은 학습성취, 두드러진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입니다.

ADHD를 가진 경우에도 부주의로 인해 많은 사회적 단서를 놓치고, 과잉행동과 충동성으로 인해 부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ADHD를 단독으로 가진 사람의 행동은 사회적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질적 저하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 등의 강도에 있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15

ADHD인지 자폐인지 헷갈립니다 -2

ADHD와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단독질환인 경우 서로 다른 개입법을 필요로 하고,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질환 때 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나타내게 되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DHD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헷갈리는 경우 반드시 소아정신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에 ADHD가 공존하는 경우에도 역시, 약물치료는 도움이 됩니다. 약물을 통해 행동문제나 실행기능의 개선되면,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을 통한 자존감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일지라도 큰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드라진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6

경계선 지능과는 구분이 가능한가요?

경계선 지능이란 표준화된 지능평가에서 IQ 70~84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성이나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드러날 수 있어 자폐성장애와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반적 인지 기능에 비추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양상이 어떠한지 감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은 심한 지적장애나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흔히 동반하는 상동행동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나 집중적인 조기중재를 통해 증상이 옅어지고 지능이 상승한 경우, 경계선지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아동발달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두 질환을 구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17

자폐증이 아니라 강박장애인 것이 아닌가요? -1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반복적이고 제한된 행동과 강박증상을 특징적 증상으로 가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강박장애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 및 언어의 장애가 좀 더 심하고, 주된 장애영역이며, 행동의 반복적 패턴이 비기능적이면서 좀 더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스펙트럼 아동이 보이는 대표적 강박증상들은 반복적인 움직임, 반향어, 변화에 대한 저항 등이 있는데 이는 아동과 주변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치료적 중재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자폐스펙트럼 아동이 강박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행동치료나 약물치료 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17

자폐증이 아니라 강박장애인 것이 아닌가요? -2

강박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약물로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있습니다. 뇌의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해주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일한 생각을 줄여주고,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박행동 중 자신의 신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 있는 경우, 또는 불안으로 인해 공격적 행동이나 문제행동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 아리피프라졸이나 리스페리돈 등으로 대표되는 비전형항정신병약물을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참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18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 진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수학교 경우에는 **전공반**에 진학하여 취업준비 등으로 학업을 연장할 수 있고, **일반 대학교나 대안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 지능을 가져 일반 대학교 진학 이후에도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가져 전과, 휴학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부모님들이 예상하고 대학 내 상담실을 이용하거나 학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학과 선택도 중요**합니다.

지적 장애가 동반된 경우 **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취업 준비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하려는 취업 의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상생활기술, 가위질 등 소근육운동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작업수행 능력, 분노 조절 등 충동조절 능력**이 필요하다고 현장 담당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너무 바로 작업장이나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진(burn out)되어 우울해지는 경우도 종종 진료실에서 접하게 되어 부모님들께서 **천천히 자녀들의 속도에 맞추고, 자녀 스스로의 의사를 물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든 사람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

이주현(아이나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남욱(연세나무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소영(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마음튼튼센터)

이주영(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연경(밝은미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AUTISM EXPO